

심현섭 "11살 어린 여자친구 누가 선물 준 것 같아"

등록 2024.07.22 00:02:00 | 수정 2024.07.22 08:28:59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코미디언 심현섭 11살 어린 여자친구에게 다시 한 번 프러포즈 계획을 세운다.

22일 방송되는 TV조선 예능프로그램 '조선의 사랑꾼'에선 심현섭이 배우 심혜진을 만나 여자친구를 향한 마음을 드러낸다. 심혜진이 "어떤 면에서 프러포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냐"고 하자 "카페 회전문 들어갈 때부터 좋아졌다"고 한다. 그러면서 심현섭은 "내가 '소백남'이지 않나. 소개팅 백 번 한 남자. 그동안 외로웠다. 그런데 여자친구를 만나고 완전히 다르더라.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 다정하게 로망을 실현해줬다. 누가 선물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심혜진은 "지금 같은 분위기이면 잘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수 안 하면"이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